

하루 피로 싸~악...갯벌 뱀배·녹차 족욕 즐겨볼까

보성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6~8일 장양어촌체험마을 등서
황금 찻잎 찾기·레저뱀배대회
농어업유산 체험 35개 프로그램

“선조의 지혜 담긴 보성 농어업유산의 우수성 직접 느껴보세요.”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와 함께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가 6일부터 8일까지 장양어촌체험마을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다. 보성군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차별적이고 독특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뱀배어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장양어촌체험마을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유종안밴드 후니옹이, 김아람 팝페라팀이 함께 하는 K-Water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 차 품평대회 ▲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 ▲티 아트 페스티벌 ▲황금 찻잎 찾기 유산길 걷기 챌린지 ▲국제 학술 세미나 ▲제9회 별고갯벌 레저뱀배대회 ▲학생차 예절 경연대회 ▲티 퍼포먼스 경연 등 총 35개에 이른다.

축제 장소는 더 많은 관광객에게 보성군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알릴 수 있도록 장양어촌체험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와 함께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가 오는 6일부터 장양어촌체험마을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지난 축제레저뱀배대회 모습. <보성군 제공>

마을과 한국차문화공원으로 나뉘어 진다.

◇어업유산을 즐기고 싶다면, 장양어촌체험마을 1행사장으로=제9회 별고갯벌 레저뱀배대회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중·고, 대학·일반부 등으로 구분해 펼쳐진다.

레저뱀배대회 외에도 갯벌 풋살대회부터 갯벌 생물 잡기, 갯벌 속 보물찾기 등 즐거움 높이고 함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갯벌 VR(가상현실) 체험, 갯벌 속 생물 무료 시식(짬뽕, 칠게 튀김), 어업유산 홍보관, 전통 뱀배 전시, 꼬막 화가 사진전, 꼬막빵 무료 시식 등이 있다.

또한 ‘보성 뱀배어업의 중요성과 보전 가치’를 주제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최근 동향(Aurelie 박사), 여자만 해역 보성 별고갯벌의 가치(김준 교수) 뱀배를 이용한 보성지역 갯벌어업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Yagi 교수, 황길식 박사) 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농업유산을 맛보고 싶다면, 한국차문화공원 2행사장으로=한국차문화공원에서는 차의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제10회 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 녹차전통차·녹차기계차·홍차·청차·황차 5개 부문의 우열을 가리는 제12회 세계 차 품평대회,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동작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제2회 티 퍼포먼스 경연, 학생들의 차 예법을 볼 수 있는 학생 차 예절 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또한, ‘녹차수도’라 일컫는 보성의 유서 깊은 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차 역사관 전시와 찻사발 도예가의 시선전이 한국차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한중일 차문화 체험, 찻잎 따기&한중차 만들기, 녹차 스카프 만들기, 녹차 족욕, 고려단차 만들기, 말차 격분 체험, 녹차 오란다 만들기 등 차 향 가득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차문화공원 내 마련된 유산길(잔디광장→티움차밭→남측차밭→잔디광장) 걷기 챌린지도 이번 축제의 묘미다. 워크온 앱에서 신청 등록 후 차항을 느끼며 걷다 보면 보물찾기 기회(황금 찻잎 5개/각 1돈, 고급 차 & 1인 다기 30세트, 명품보쌈살 300개/kg)와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아름다운 유산, 한국의 차!’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보성·하동 군립국악단 협연, 지자체 농업유산 홍보 전시 등이 추진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와 축제를 연계한 지역 특유의 관광 자원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달부터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고흥군이 9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 결과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돌봄서비스는 자신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지적·지폐성)장애인에게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학계,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의 심사위원은 사업 운영의 적합성, 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 협력 기관 확보의 다양성,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살폈다.

최중 선정된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대성 고흥군 부군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고흥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보 광양시 망덕포구서 균 확인 어패류 생식 금지 등 당부

광양시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 결과 지난 12일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확인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섭취, 피부 상처와 바닷물의 접촉이 주요 감염원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월과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과 소포 등 피부병변을 동반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광양시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지난 6월부터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수 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준·대형 점포 대상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여수시가 추석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선물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준·대형 점포의 과대포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다. 단속반은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명절 선물 포장 간소화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순천쌀 아침밥 세트’ 400개 배부

순천시가 지난 28일 순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국민 ‘쌀 소비촉진(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순천시청,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직원들에게 순천쌀로 구성된 아침밥 세트 400개를 배부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 및 의대유지를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순천시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해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한편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침밥 세트에 사용된 순천쌀은 ‘나누우리’라는 브랜드로,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쌀 소비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외식업소 공급업체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28일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서 직원들에게 아침밥 3중세트를 나눠주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순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의 건강과 지역 농가의 경제

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 소비 촉진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